

2010년 8월호(통권 15호)

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서남권 르네상스

- 신정뉴타운, 서남권 대표 '친환경 복합도시'로 p 1
- 서울 15개 뉴타운지구, 31개 학교신설 p 3
- 마곡단지, 3년내 글로벌기업 26개 투자유치 p 5

◇ 동북권 르네상스

- 도심 최초의 오토캠핑장 중랑캠핑숲 22일 임시개장 p 6
-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음식문화체험 복합단지'로 p 7
- 예술치료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문 열어 p 11
- 서울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심의통과 p 12
- 동네뒷산,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커뮤니티 공원으로 p 14
- 광진소방서 신축공사 착공 p 15

◇ 알립니다

- 서울시 부동산정보, 휴대폰으로 실시간 열람 p 16
- 우리동네 도시계획,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다 p 16
- 찾아가는 「여행(女幸) 부동산교실」 7월 첫 개강 p 18

신정뉴타운, 서남권 대표 '친환경 복합도시' 로

- 신정뉴타운 일대 친환경 갖춘 주거·상업·업무 복합도시로 거듭나
- 신정 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최고높이 80m, 4동의 주상복합건물 건립, 310세대 공급예정(임대 16세대 포함)
- 생태순환녹도(Eco-Ring) 조성 및 계남근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구축
- 신월로변 주거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상업가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주거지로 손꼽혔던 신정4거리역 일대가 친환경 주거지와 단지주변의 대로변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 신정뉴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목동신시가지와 인접한 신정뉴타운은 계남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남부순환로, 신월로 및 강서로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주거지로 손꼽혔던 곳이다.

특히 신정네거리역에 인접한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및 신정뉴타운 바깥부분에 띠모양으로 위치한 존치관리 1~5구역은 1970년대 구릉지를 따라 형성된 고밀도 이주민정착단지로서 노후불량주택과 재래시장 및 저층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어 대로변 상업·업무 기능이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이런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내용은 신정뉴타운의 신월3동 주변 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신정4거리역변에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이다.

신정뉴타운 전 구역 서남권의 대표적 친환경 주거·상업·업무 중심지로 사업 본격화

이번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으로 신정동 일대는 서남권의 대표적 친환경 주거단지와 상업·업무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된다.

신정뉴타운의 기존 친환경 주거단지인 신정1-1, 1-2, 1-3, 1-4, 2-1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신정2-2구역은 9월말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다.

기존 주거단지계획에 따르면 가로 및 공원녹지축을 구축해 새로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구릉지에는 기존 경사지의 한계를 극복한 테라스하우스를, 가로변에는 연도형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활성화하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는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배후 주거지 지원 기능과 목동에 집중된 양천구내 상업기능을 보완 할 예정이다.

향후 신정뉴타운은 대중교통이 편리한데다 외곽에는 상업업무시설과 계남근린공원으로 둘러싸여 생활편익 시설이 근접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친환경 미래형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정3구역에는 최고높이 80m의 주거복합건물 4개동에 총 310세대 공급 예정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은 용적률 518%, 건폐율 55%로 최고높이 80m의 업무 및 주거복합건물 4개동 310세대가 건립되며, 이중 16세대는 임대로 건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12년 초에 착공하여 늦어도 2016년 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내 저층부 연도형 상가와 연계하여 상업가로(Biz-Street) 및 생활가로(Community-Street)가 활성화되도록 계획했다.

간선도로변 상업업무시설과 신정1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하여 상업가로(Biz-Street)를 활성화되도록 유도했으며

보행자 위주의 생활 커뮤니티 가로 조성 및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해 촉진3구역에 저층부 연도형 상가를 따라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확보하여 생활가로를 활성화하고, 무장애 보행 공간을 조성한다.

신정 뉴타운내 도시환경 개선, 기개발지 관리 유지 등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정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신월로 및 강서로변 근린생활시설들은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였다

특히 간선가로변은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대신 이면도로로 차량진출입을 유도하여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간선도로변에는 최대 3,000㎡이하, 이면부지는 1,000㎡이하의 개발규모를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권장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신곡시장은 낙후된 재래시장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기존 골목을 따라 형성되어 화재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침체된 주변 지역의 상권을 대체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향후 신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로서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구본균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반원형의 생태순환녹도(Eco-Ring)가 단지 중앙을 관통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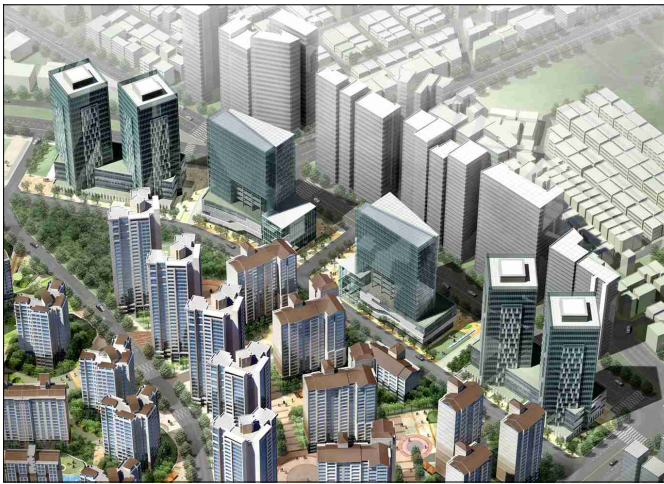
□ 위치도



□ 배치도 (신정3구역)



□ 조감도



(뉴타운사업 2담당관 ☎ 2171-2641)



서울 15개 뉴타운지구, 31개 학교 신설

- 초등 13개교, 중 7개교, 고등 11개교, 이 중 하나고 등 우수고 3개교 신설
- 뉴타운 지구내 기존학교 중 27개교 시설개선, 3개교 같은 지구내 이전신설
- 신설, 시설개선, 복합화, 클러스터 조성 등 뉴타운 교육환경 대폭 개선될 것
-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받도록 해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 기대

2019년까지 서울 15개 뉴타운지구에 31개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내 학교를 신설하고 우수고 유치, 기존 학교의 시설을 개선해 뉴타운 내 교육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총 26개 뉴타운 지구 중 15개 뉴타운지구에 31개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학교 중 27개 학교의 시설개선과 3개 학교의 이전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설 되는 학교 중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개 우수고를 유치하고,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교육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해 뉴타운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 개념을 도입,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보권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학교는 학생수 추정과 인근지역의 학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를 균형있게 배치하였다.

뉴타운 지구 내 31개교의 신설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이다.

지역별로는 은평에 초5, 중2, 고3, 길음에 고1, 왕십리에 초1, 고1, 전농·답십리에 고1, 미아에 중1, 고1, 가재울에 초2, 중1, 고1, 아현에 초1, 한남에 초1, 수색·증산에 고1(미정), 흑석에 고1(미정), 신길에 중1, 북아현에 초1, 이문·화경에 초1, 고1, 상계에 초1, 중1, 창신·송인에 중1개교이다.

이 중 사업진도가 빨라 상당부분 입주가 진행된 은평 뉴타운에 진관초, 은진초, 신도초, 진관중, 신도중, 진관고, 하나고 등 7개 학교가 신설되어 개교하였고, 효자초등학교와 신도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31개 학교의 부지는 모두 확보가 된 상태이고

향후 교육청과 협의, 뉴타운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용지매입 비용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1/2씩 부담하여 용지를 매입하고, 우수고는 서울시에서 직접 매입하게 된다.

뉴타운지구에 신설되는 31개교에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약 7,900억원으로 이 중 4,668억원은 시가 부담하게 되며, 현재까지 시에서 우수고 3개교를 포함 10개 학교에 2,370억원을 투자했다.

8개 학교 부지를 매입하였고, 2개 학교는 부지를 매입중이며, 나머지 21개 학교는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뉴타운지구내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학교로 건립되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개교의 우수고를 유치하여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북권을 대표하여 은평뉴타운지구내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를 유치하여 '10년 3월 2일 개교하였고, 동북권내 길음지구내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위하여 계성여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농답십리뉴타운 전농7구역 내에 우수고를 유치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운영 법인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 기존학교 56개 학교 중 27개 학교는 학교용지를 넓히거나 정형화해 같은 면적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3개 학교는 조합부담으로 같은 지구 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고 26개교는 존치된다.

이 중 전농답십리의 경우 학교 주변에 국제교육원, 교육문화센터 등을 집적시켜 교육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 취약지역에 학교신설, 우수학교 균형배치 및 교육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 뉴타운 내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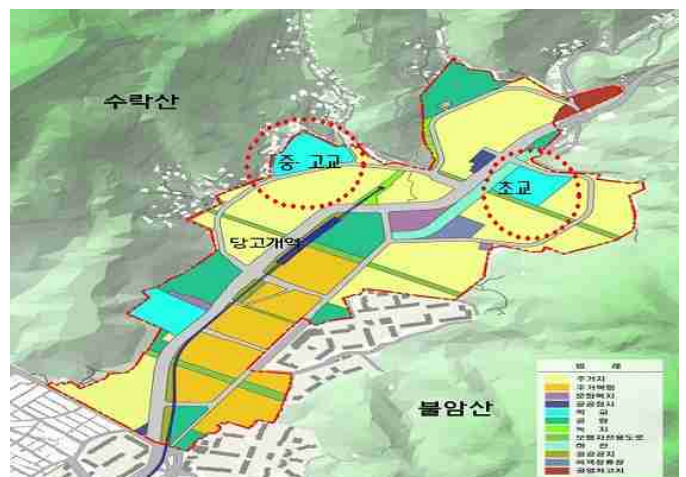
서울시 임계호 뉴타운사업기획관은 “뉴타운 내 교육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서울 강남북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뉴타운지구 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지구내 학교 위치도

전농답십리뉴타운



상계뉴타운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7)

마곡단지, 3년내 글로벌기업 26개 투자유치

- 서울시,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타겟마케팅」 본격 가동
- 마곡DMC 등에 글로벌 앵커기업유치,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 52개 기업과 MOU체결, 26개 기업 투자유치
- 2032년까지 금융 /IT/BT/GT 분야 일자리 5만8천개 창출

서울시가 마곡 산업·국제업무단지를 비롯한 서울 전 지역에 IT·BT·GT 등 서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서울시 미래전략 산업 맞춤형 타겟마케팅」을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투자유치마케팅은 해외투자박람회, 해외 IR·로드쇼에 참가해 서울에 관심 있는 투자자 다수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과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일방적 투자설명회나 공공기관 중심의 투자유치마케팅은 단순 홍보에는 효과적이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최초 글로벌투자기업별 맞춤형마케팅, 3년간 체계적관리→실질적 투자유치

서울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타겟마케팅」은 세계적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엄밀한 산업분석모형을 통해 타겟기업을 선정하고, 민간컨설팅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타겟기업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투자와 연결시키는 마케팅 기법이다

예를 들면 외국기업이 서울에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평균 3년간 소요되는 데, 서울시가 관심기업 물색부터 입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협상

해 실제 서울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관리해 주는 형식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국내외 기업분석을 통해 타겟기업 및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시 관계자가 직접 당해 기업을 방문하여 1:1상담을 통해 MOU체결 및 타겟기업의 서울 방문을 유도 하며 '12년에는 타겟기업의 투자조건 등을 확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는 타겟기업 및 서울시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MOU체결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11년도에는 MOU를 체결한 기업을 서울시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서울투자지역 현장 감증을 유도하고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년도에는 타겟기업과 투자금액,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투자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절차 대행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성사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 마곡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SH공사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통합PM(Project Manager)운영해 매년 타겟마케팅 추진실적을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21억5천만원 투입 26개기업유치, 단지조성완료시 고용창출 5만8천개

서울시는 금번의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타겟마케팅」을 위해 '12년까지 약 2년 6개월간 총21억 5천만원('10년 5.5억, '11년 8억, '12년 8억)을 집중 투입해 총 52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26여개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산업분야의 일자리 5만8천개를 창출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컨설팅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 대상기업 604개를 발굴하여 정밀 분석한 후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기업 156개를 확정, 투자유치 가능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마곡지구에 금융/IT/BT/지식서비스 분야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동종업체 10위권 이내 우수기업이나 포브스선정 500대 기업 수준의 글로벌 우수기업 26개와 기타 국내외 다수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약 5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별 전문성 · 글로벌 네트워크 ·

현지 밀착형 투자유치 가능한 민간전문컨설팅사 모집

이에 앞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민간전문 컨설팅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현지에서 유치대상기업의 핵심인사와 1:1투자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산업분석 역량, 투자유치 전문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하며,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현지 밀착형 투자유치활동이 가능한 전문대행 컨설팅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우수 경영컨설팅사 여러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박중권 투자유치담당관은 “맞춤형 타겟마케팅은 마곡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지역에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해 전략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며 “3년간 업계순위 10위권 이내 세계적인 우수기업 26개를 유치해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담당관 ☎ 2171-2842)

도심 최초의 오토캠핑장 ‘중랑캠핑숲’ 22일 임시개장

- 망우동 그린벨트 야산 18만㎡, 40년 만에 동북권 200만 주민공간으로
- 47면의 캠핑사이트 200명 이상 수용, 바비큐장과 스파..국내 최고시설 자랑
→ 26일 14시부터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예약, 8월2일부터 이용 가능
- 260석 독서실, 밴드 및 댄스동아리방, 상담실 갖춘 <청소년문화존>
- 자연향기 가득한 <숲체험존>, 농작물 가꾸고 고향정취 느끼는 <생태학습존>

망우동 그린벨트 야산 18만㎡, 40년 만에 동북권 200만 주민공간으로



중랑구 망우동의 변두리 야산 18만㎡(약 54,000평)가 그린벨트로 묶인 지 40년 만에 동북권 200만 주민들이 가족문화와 휴식, 청소년문화까지 책임지는 ‘중랑캠핑숲’으로 대변신, 22일(목) 문을 연다.

중랑캠핑숲 부지는 흔히 망우리고개로 알려진 망우로 왼편에 위치한 완만한 임야지역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에 의해 노후 불량주택, 무허가건물, 무단경작에 의한 산림훼손, 분묘가 난립하는 등 심하게 낙후된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훼손되었던 중랑구 망우동 241-20번지 일대에 2007년부터 새롭게 조성중인 ‘중

랑캠핑숲'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보상 중인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태까지 공사 대부분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 이용이 물리는 여름방학 전에 임시 개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공은 9월 중순 예정

이 일대는 전철 중앙선 양원역이 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인근 2km 이내에 동원중, 송곡고 등 총 15개 학교(초·중·고교 각 5개씩)가 밀집하고 있는데다, 가까이에 중화망우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공원 이용시민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조성된 중랑캠핑숲은 ▲가족단위 오토캠핑이 가능한 37,200㎡<가족캠프존> ▲청소년을 위한 25,300㎡<청소년문화존> ▲자연정취 그대로를 살린 42,000㎡<생태학습존> ▲한가로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75,166㎡<숲체험존>의 네 개 구역으로 특색 있게 운영된다.

이 중 22일(목)부터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존 내 청소년 독서실(커뮤니티센터 제외), 어린이 놀이터 등 공원시설과 숲체험존이며, 가족캠프존은 8월 2일(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47면의 캠핑사이트 200명 이상 수용, 바비큐장과 스파..국내 최고시설 자랑

특히 3만7,200㎡의 <가족캠프존>은 서울 도심공원에 설치되는 최초의 오토캠핑장으로서, 총 47면의 캠핑사이트가 설치돼 있어 1일 최대 200명 이상 이용이 가능하며, 바비큐장, 스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각 사이트마다 잔디밭, 바비큐그릴, 야외테이블, 전원 공급시설 등이 별도로 설치돼 시설 측면에서는 '5성급 캠핑장'이라 불릴 만큼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말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비, 경제적 부담을 안고 타 지역 캠핑장을 찾아 떠나는 문제를 해소, 도심 가까운 곳에서 가족단위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권역별 캠핑장을 확충하고 있다.

※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 현황(서울시내)

- ▷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 면적 132,000㎡, 텐트 100동(일반)
-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 면적 26,000㎡, 텐트 194동(일반)
- ▷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 면적 12,000㎡, 텐트 48동(일반), 오토 8동
- ▷ 노을공원 캠핑장
: 면적 8,400㎡, 텐트 50동(일반)



또 중랑캠핑숲의 오토캠핑장은 캠핑장 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타 지역 캠핑장에서 지적됐던 불편을 해소했으며 입구에 별도 버스주차장도 설치해 학생 등 단체 이용객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한강 난지·노을캠핑장 등 서울시가 조성한 기존 캠핑장은 대부분 캠핑장내 주차가 불가능해 야영을 위한 많은 도구들을 주차장에서부터 캠핑장까지 옮기는 어려움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스파'와 '샤워실' 또한 중랑캠핑숲만의 '시민배려시설'로 통한다. 이들 시설은 자연에서 숙박하는 캠핑의 성격상 추위 등으로 인해 숙박 후 피로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육체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규모는 작지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설치됐다.

특히 여름철 캠핑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 보호자들이 캠핑장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이들끼리도 작은 규모지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숲속에 어린이놀이터도 함께 설치해 단순 물놀이로 인한 지루함도 덜어줬다.

오토캠핑장은 평일엔 초·중학생 등의 체험학습·창의활동(CA)과 직장인들을 위한 워크숍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실도 갖추었으며, 주말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26일부터 중랑캠핑숲 인터넷 홈페이지(parks.seoul.go.kr ⇨ 중랑캠핑숲)를 통해 선착순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성방가 등 인근 주택가 거주자와 다른 캠핑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철저히 규제된다.

캠핑장은 국내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업체 (주)아우토반디디자인하우스가 위탁운영하는데, 관리소 1층에는 캠핑장비 전문매장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점도 함께 설치 운영된다.

서울시는 캠핑장 에너지를 절약할 위해 캠핑장관리소와 식기세척장 지붕에 태양광발전 기능을 도입, 두 건물에 사용되는 1일 사용전력의 약 20%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26일 14시부터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예약, 8월2일부터 이용 가능

오토캠핑장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26일(월) 14시부터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 ⇨ 중랑캠핑숲)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8월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260석 독서실, 밴드 및 댄스동아리방, 상담실 갖춘 <청소년문화존>

25,300㎡ <청소년문화존>엔 주변 15개 학교 13,700여명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 260석 열람실 규모 '청소년독서실'과 ▲취미활동, 장기개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밴드 및 댄스동아리방'과 ▲

청소년상담실로 사용될 '청소년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된다.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커뮤니티센터 모두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데, 청소년독서실은 도시락공장 2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오는 7월22일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청소년커뮤니티센터는 오는 9월 중순경 문을 열 예정이다.



자연향기 가득한 <숲체험존>, 농작물 가꾸고 고양정취 느끼는 <생태학습존>

중랑캠핑숲 내에서 가장 넓은 75,166㎡의 <숲체험존>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현재의 자연지형과 양호한 산림을 그대로 보존한 '산림욕장', '참나무관찰원'과 등산로를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인공시설을 최소화했다.

<생태학습존>엔 논, 밭 등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경작체험장'과 수생식물의 생활사를 관찰하는 '수생습지원'이 도입되고, 기존 과수원을 이용한 '배꽃향기원'이 고향의 향수와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식생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중랑캠핑숲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주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캠핑장을 권역별로 조성해 시민 고객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가족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원조성과 ☎ 2115-7588)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음식문화체험 복합단지' 로

- 서울시, '지역맞춤형 상권조성'을 골자로 하는 45~55층, 총면적 26만㎡ 규모의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발표
-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계 개발, 청량리 부도심 획기적 변화의 초석 마련
- 식자재 도/소매마켓, 세계 음식백화점, 요리문화 아카데미 등 음식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동북 아시아 맛과 향의 허브” 조성... 2015년 완공예정
- 청량리 부도심 개발의 걸림돌이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 답십리길 도로선형을 개선, 광장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주변 개발의 원동력 마련
- 지상2층~지하1층에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조성, 개방 예정

서울시는 밀집된 노점상과 집창촌, 낙후된 시장으로 대변되는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대 '동부청과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청과시장은 지난 1972년 문을 연 후, 30년 이상 동북권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에 일조해 왔지만 시장시설이 노후화되고 도로변 노점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점포들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었다.

또한, 고객들의 변화된 소비패턴에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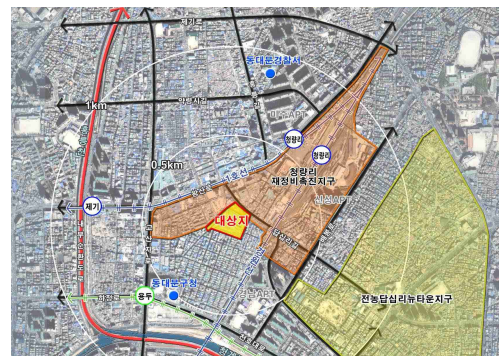
히 대응하지 못한 채 그 기능이 낙후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는 등 점차 슬럼화되어 범죄의 위험성까지 커지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09. 2. 19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 '동부청과시장'을 서울시는 이번 사업추진계획(안)에서 주변의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 보다 현대화된 상권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보완한 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량리 부도심 획기적 변화의 초석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사업추진계획이 금번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십여년간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청량리역 주변을 동북권 부도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첨단 멀티



플렉스 시티로 조성하려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선도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각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은 동북권 부도심인 청량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청량리구역(구역면적 72천㎡, 최고높이 200m), 용두1구역(구역면적 51천㎡), 주택재건축예정지역(구역면적 88천㎡) 등과 인접되어 있어 청량리 부도심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향후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 전농답십리뉴타운(구역면적 905천㎡)이 들어서는 동북권 주민들에게 쇼핑문화편의시설의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시아의 맛과 향의 허브로 조성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동부청과시장은 지하 7층, 지상 45~ 55층, 총면적 26만㎡의 규모로 용적률 973%, 높이 180m 이하의 타워건물 4동이 세워지고 기존 매장의 5배인 매장면적 23천㎡의 판매시설과 999세대의 공동

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분양되지 않고 공점포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상권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한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과 향후 청량리 재 정비촉진지구로 들어서게 될 초대형 상권의 접점으로서 조화를 유도하고 현재 청과시장의 식자재 도/소매 기능의 유지 등을 고려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 유통형태의 선진화를 도입하고자 세계요리 식자재 도/소매마켓, 세계음식백화점, 세계 식요리문화 아카데미, 세계 주류 및 월빙식품 전문마켓 등 음식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문화 체험복합단지”를 조성, 동북 아시아 맛과 향의 허브로서 독자적 상권을 특화하여 수



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약 30 억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총괄관리법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입점상인 교육, 상권 홍보 및 사후 유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입점을 원하는 상인들에게 입점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등 준공 후 운영관리계획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기반시설조성 등 이용편의성 높여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계해 답십리길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약 64백㎡)을 조성·제공할 계획이며,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주 보행 동선인 브리지를 연결하여 청량리 지역에서 오는 상가 이용자 및 시장 배후의 주거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청량리 개발의 난제였던 국공유지상 불법 노점상, 무허가건물을 모두 정리하였고, 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수요 조사를 거쳐 지역에 꼭 필요한 도서관, 노인복지센터 등 주민복지 시설로 건립(지하1층~지상2층, 약 26백㎡)하여 동대문구에 기부할 예정으로 향후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 등 소통의 장(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계획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1층에 대규모 오픈광장을 도입하였고 광장에서 스텝가든(대형계단)을 통하여 바로 지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상 2,3층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수직 동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층 부분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보행동선이 개방되는 ‘로드샵’ 형태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은 침체된 래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하고 음식문화체험복합단지로 특성화함으로써 낙후된 청량리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계획이 확정된 동부청과시장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5)

예술치료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문 열어

- 옛 성북구보건소 리모델링한 성북예술창작센터 28일 개관
- 예술을 통한 '치유 · 소통 · 나눔'으로 특화한 주민창작공간으로 운영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예술치료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종암동에 위치한 옛 성북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성북예술창작센터가 6월 작가들의 입주를 시작, 오는 28일(수) 문을 연다고 밝혔다.

6월 작가들의 입주와 함께, 파일럿프로젝트 등 일부 프로그램은 먼저 진행되고 있다.

예술치유 · 주민창작으로 특화한 공간, 전시 · 예술체험 등 시범운영

예술치유와 주민창작으로 특화한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연면적 1,997㎡(604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4층 및 옥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민창작실 2개실, 카페 홀, 갤러리(스페이스_맺음), 음악실(스페이스_공감), 다목적 홀 2개실(스페이스_치유, 스페이스_나눔), 회의실(스페이스_소통), 입주단체 스튜디오 7개실 및 옥상 하늘공방 등으로 이뤄져 있고, 모든 공간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인 성북예술창작센터는 기획 초청 및 정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



된 7개 예술단체와 함께 주민 대상의 다양한 예술치료 및 주민 동아리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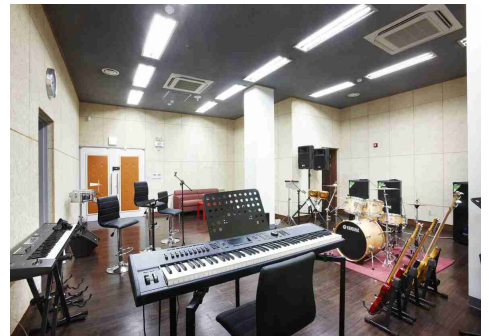


제 1기 입주단체는 정여주미술치료연구소(미술치

료), 숙명음악치료연구회(음악치료), 디자인교육연구소 씨알드림CRdream(디자인교육), 삼분의 이(사진교육), 언앤아르NNR(특정 장소 안에서의 미술), 몸짓 느루(공연 및 몸짓체험), 2010 두잉 아트 프로젝트2010 Doing Art Project(교육극) 등 모두 7개의 예술단체이다.

또, 파일럿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전시·콘서트(푸드 테라피)쿠킹클래스·예술체험·음악 및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바탕으로 오는 9

월부터 예술치유 및 주민창작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7월 28일(수)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개관 행사를 진행한다. 치유전시 및 다방 프로젝트, 음악치료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 행사로 아트마켓과 미니 치유 콘서트, 7개의 입주단체가 공간을 개방해 스튜디오와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및 공간투어가 진행된다. 또한 성북예술창작센터의 다양한 공간과 입주단체의 프로젝트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도 소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북구보건소가 몸을 치유하는 곳이었다면,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시민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통합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창작공간은 도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및 교류의 공간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운영되어 예술과 시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문화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받고 있다.

‘09년

에 남산예술센터, 연희문학창작촌 등 5개소가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10년은 문래예술공장(문래창작촌 및 신진작가 지원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예술치유 및 주민창작 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9월 예정, 어린이 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11월 예정, 생태주의 예술창작센터)

※ 서울시창작공간 운영 현황

- 2009년 5개소 : 남산예술센터(동시대 연극 제작), 서교예술실험센터(홍대문화 생태계지원 센터), 금천예술공장(국제 레지던스 및 프로젝트 스페이스), 신당창작아케이드(시장 속 공방촌), 연희문학창작촌(문학 전용 집필 공간)
- 2010년 4개소/예정 : 문래예술공장(문래창작촌 및 신진작가 지원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예술치유 및 주민창작 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9월 예정, 어린이 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11월 예정, 생태주의 예술창작센터)

접수방법(온라인·방문 접수)

성북예술창작센터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bartspace>)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28-358번지 성북예술창작센터

(☎: 02-943-9300)

(문화정책과 ☎ 731-6708)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2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32,882㎡,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45,102㎡,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46,519.6㎡에 대한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대상지인 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 세 마을은 지난 2010년 4월 발표된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사업 중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이다. 또한, 아파트 일변도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유형의 획일화, 고밀개발에 따른 경관자원의 훼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층 단독주택지를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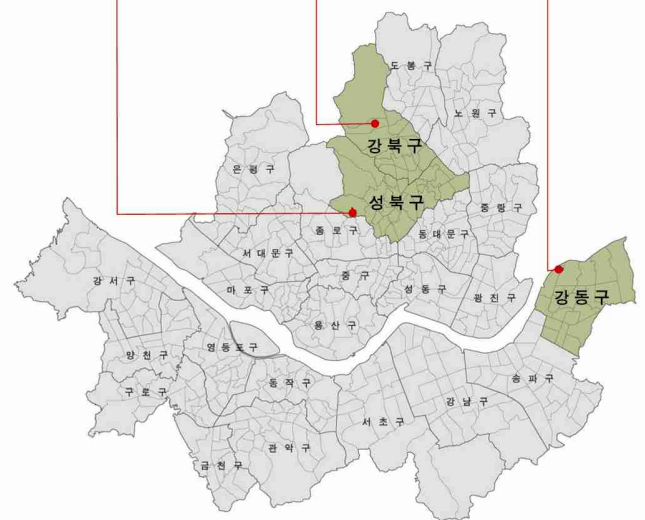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의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내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수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그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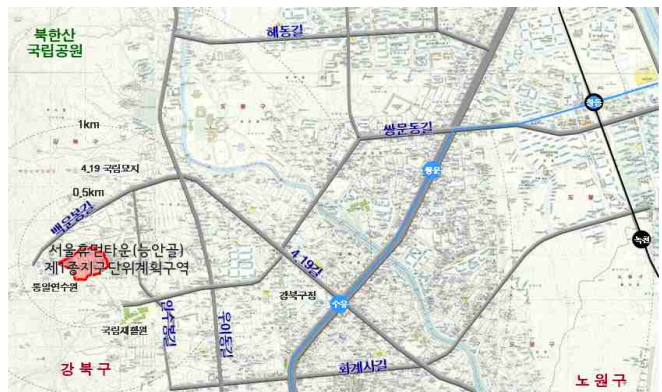
금회계획안에는 암사동 서원마을의 경우 정주성 및 주거지 경관관리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층수를 2층으로 하여 마을의 정주환경을 보호하였다. 또한 열린 정원인 골목길의 그린 존(Green Zone)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하여 벽면한계선을 지정하고, 지붕 및 외벽의 재료와 색채, 부설주차장 구성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하였다.

인수동 능안골은 기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지에 대해서 단독주택(4가구 이하)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층주택지 조성을 통해 인접한 북한산의 경관이 보호되도록 계획 하였으며, 주택의 지붕, 대문, 담장 등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북동 선유골은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북동길변 공유지에 마을 주차장과 이태준길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정비하고, 정주환경의 보호를 위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택가 내부지역의 이태준길 또는 선유길에 면한 1개층 200㎡미만으로 하였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경사지에 위치한 기존 연립주택인 낙원연립의 경우 개발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금번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능안골,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심의가결로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단독주택지 보존 및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사업에 대비하여 주거유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단독주택 위주의 “살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도시관리과 ☎ 6361-3538)

동네뒷산,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커뮤니티공원으로

- 내년 상반기까지 불암산, 관악산 산자락 2개소 23,186㎡에 조성
- 동네와 접한 경작지를 새로운 공원서비스 수요로 재창출해 공원조성에 반영
- 공동체 텃밭, 바비큐장, 마을중심의 휴게공간으로 커뮤니티 회복 계기

동네 주민들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변 훼손된 산자락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지에 따라 마을 텃밭, 바비큐장, 마을모임을 위한 휴게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형식의 커뮤니티가든을 도입하여 조성한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되는 대상지는 불암산과 관악산 자락 2개소 23,186㎡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노원구 상계동 95-336 일대)

대도시 어느 동네에서나 흙이 있는 공지와 옥상 벼란 다의 화분에는 이맘때 고추상추토마토 등이, 가을엔 배추무가 탐스럽게 자라는 모습이 하나의 고정된 풍경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는 어르신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직접 재배해 드시는 의미도 있지만,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몸에 익은 소일거리로써 의

미가 있다.

산에서의 불법경작도 대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무로한 도시에서 소일거리로 즐기시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불법)행위가 공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텃밭공원이나 공동체텃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공원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조성 전략의 궤도수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업활동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이웃간의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관심은 서울시만의 것은 아니다. 이미 영국의 얼로트먼트 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 캐나다의 커뮤니티가든 등 도시농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사례들은 많다.

서울시에서는 동네뒷산 한켠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경작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커뮤니티가든 성격이 강한 마을 텃밭공원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운영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불암산(노원구 상계동) 기본구상(안)

이번 시범사업은 지목이 잡종지와 전으로 실제로 장기간 경작을 해오던 관악산 자락 중 관악구청과 인접한

관악구 청룡동 565-90번지 일대 약 6,263㎡와 불암산 자락인 노원구 상계동 95-336번지 일대 16,923㎡이며 이들 장소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커뮤니티가든이 조성되는 공원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평탄지역으로 경작활동이 있었던 곳에 무분별한 경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획되어 조성되며, 이와 함께 관리시설을 갖추어 운영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 외 공간은 휴게시설,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력단련시설, 생태연못과 초화원 등 다양한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적 성격의 텃밭들이 모여져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공동 관리공간 및 휴게공간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소통과 교류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올해 설계와 토지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인 경작이 이루어지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개장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성 및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텃밭운영위원회 설치, 자연체험학교 운영, 텃밭 컨테스트 개최 및 각종 친환경재배교육을 병행해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불법경작으로 단속대상화만 할 것이 아니라 적용가능한 공간에 제도적 뒷받침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무분별한 이용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자율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조성과 ☎ 2115-7594)



광진소방서 신축공사 착공

- 기존 광진소방서 부지 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
- 2012년 5월 완공예정

서울시는 1981년에 개청하여 광진구와 성동구 지역을 관할해 온 광진소방서를 늘어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 공사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한강 랜드마크 건립 계획, 성수동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대형건물 건설 및 인구유입 증가로 화재재난 취약대상이 급증하여 소방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진소방서는 기존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760㎡ 규모로 총 1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7월 20일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8월 초에 착공, 오는 2012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청사가 완공되면 119안전센터 1개, 구조대 1개 조직,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21대를 갖추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광진소방서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소방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 3708-2607)

서울시 부동산정보, 휴대폰으로 실시간 열람

- 서울시, 세계 최초 'u-토지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주소/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필지 부동산종합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어
- GPS 가능한 모바일폰, 자신의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해 반경 50m 필지까지 한 번에 검색
- 지목, 면적, 토지이용연역, 개별공시지가,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계획도면, 주택가격 등 제공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부동산 정보 검색시스템을 완비하고 오는 7월 12일(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생활경제와 밀접한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새주소 등 부동산정보를 시민에게 무료로 열람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09년 한 해 동안 웹사이트를 통한 무료 열람 건수가 14,256,924건(하루 39,060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개발한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서비스를 핸드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핸드폰, 스마트폰, 넷북 등)로 이용 가능하다. 일반폰인 경우 702입력 → 핫키 (NATE SHOW Z) → m.Seoul → 부동산정보를 통해, 스마트폰인 경우 <http://m.seoul.go.kr> → 부동산정보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정보이용료는 무료로 제공되나 데이터 통화료는 이동통신사별 요금정책에 따라 별도 부과 된다.

부동산정보에서 찾고자 하는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해

당 필지의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도면포함),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특히 GPS가 구현되는 모바일폰은 자신의 위치정보(GPS/LBS)를 이용하여 해당 필지는 물론 반경 50m 필지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로 관련 시민이 이동 중 열람 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게 되어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지적도면과 연계하여 집 찾기, 주소안내 등 지도정보를 구축하고, 올 11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개발정보,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등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관리과 ☎ 3707-8059)



우리동네 도시계획,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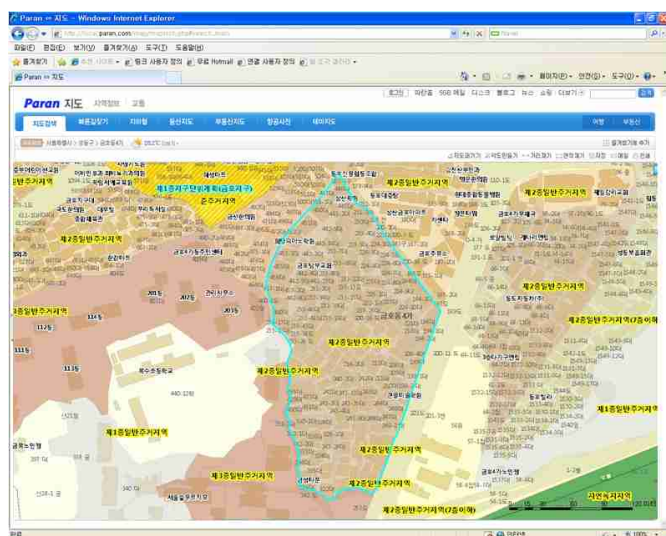
- 서울시, Naver·Paran 등에 도시계획정보 제공기로
-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구역을 포함,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위주로 제공
-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 도입으로 GOV 2.0을 구현하고 서울시 예산절감 및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효과 기대

시민 A씨는 요즘 자주 나오는 재개발 관련 기사를 접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져 인터넷에 접속했다. 하지만 이내 관련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졌다. 공공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찾으려 하니 해당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가 어디인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다. 결국 인터넷으로 몇 군데 검색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현황을 찾아보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Naver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의 도시계획정보를 현재 자체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 인터넷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의 구역지정 현황과 도시계획용어 해설자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보유한 주요 도시계획정보를 포털에 제공하고, 포털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정보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상권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사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화면 예시(금호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울시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구역, 은평뉴타운 사업구역,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현황자료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시계획용어 해설자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와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Paran을 운영하고 있는 KTH와 7월 13일 (화) 도시계획정보의 공동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NHN(Naver)과는 8월 중에 업무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 외의 주요 포털사와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 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Paran의 경우 10월 중 포털 지도서비스에 서울시 도시계획현황을 등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Naver의 경우도 협약이 체결되면 연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포털사에서 PC, 모바일 등 하드웨어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보 개방을 통한 GOV 2.0을 구현함으로써 소통의 문화를 선도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

서울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서울시 자체 홈페이지 서비스 이외에도 포털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의 다양한 발굴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도입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없이 시민에게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포털사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계획과 ☎ 6360-4755)

찾아가는 『여행(女幸) 부동산교실』 7월 첫 개강

- 중랑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회 개최
- 여성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안전, 세테크 전략 제공

서울시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시 피해보지 않고 안전한 거래방법과 부동산 절세방법 등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행 부동산교실』을 7월 20일 중랑구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행 부동산교실은 여성들에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상식, 세금, 등기절차 안내 등 실사례 중심의 강의로 안정적인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동산관련 교수, 세무사, 법무사 등 최고 전문가가 강의한다. 물론 관심있는 여성시민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첫째 시간은 “꼭 알아 두어야 할 부동산 상식”으로 부동산용어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관련 증명서류를 제대로 보는 법 등에 대하여 서울시 조봉연 토지정책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둘째 시간은 “부동산거래,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내용, 임대차시 유의사항, 매물정보 확인, 계약절차 및 중개수수료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의 강의를 있고

셋째 시간은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 아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금상식과 부동산세테크 전략 등에 대하여 정진희 세무사의 강의를 가진 후

마지막 시간은 “등기신청!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등기에 관한 일반상식, 셀프등기의 장점과 단점,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록세 신고 및 국민주택채권과 정부수입인지 매입절차, 나홀로 등기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하여 유석주 법무사의 강의를 끝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강의를 마치게 된다.

서울시는 중랑구를 시작으로 7월 27일은 양천구 대강당에서 2차 여행부동산교실을 운영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용산구, 도봉구 등에서 월 1회에서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 호응도를 보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 3707-8051)



권역별 르네상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seoulwithyou (트위터)
- ✓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동북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bukseoul>
- ✓ 서남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amseoul>